

MVP 정조국 “굿바이 광주”

강원FC로 이적... 열악한 구단 살림에 예견된 일
공격수·리더 동반 손실... 클래식 잔류 험로 예상



GWANGJU
FOOTBALL CLUB

강원이 21일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MVP인 공격수 정조국(32)의 영입을 발표했다.

올 시즌 FC 서울에서 광주로 등지를 옮

클래식 리그로 돌아온 강원 FC의 파상 공세가 광주 FC를 뒤흔들었다. 광주 유니폼을 입고 'MVP'에 등극한 정조국이 강원으로 이적한다.

강원이 21일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MVP인 공격수 정조국(32)의 영입을 발표했다.

올 시즌 FC 서울에서 광주로 등지를 옮

예견됐던 정조국의 이적이었다. 시민구단 광주는 어려운 살림 탓에 매년 '돌려막기'로 어렵게 시즌을 꾸려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원년멤버인 김호남을 제주로 떠나보내야 했다. 아쉬움 속에 김호남을 보낸 광주는 대신 이적료를 통해서 서울에서 정조국과 김민혁을 영입했다.

정조국은 '기회의 땅'에서 제 2의 전성기를 맞았고 '새로운 피' 김민혁도 마음껏 기량을 펼치면서 광주에는 없어서는 안 될 대표선수가 됐다.

정조국의 활약에 활짝 웃었던 광주지만 시즌이 끝난 뒤 고민에 빠졌다.

정조국이 올 시즌 리그를 대표하는 골잡

이로 활약을 한 만큼 대폭적인 연봉 인상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사상 초유의 임금 체불 사태까지 발생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광주입장에서는 활약에 걸맞은 대우를 해줄 수 없는 애타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일본 요코하마가 정조국에 눈독을 들이면서 이적은 어쩔 수 없는 결과로 여겨졌다. 요코하마로의 이적을 앞두고 강원이라는 돌발변수가 발생하면서 최종 행선지만 달라진 셈이다.

광주에는 어쩔 수 없는 변화에서 '이적료'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 요코하마의 협상에서는 낮은 이적료가 문제였지만

강원은 훨씬 많은 이적료를 제시하면서 정조국을 영입해갔다. 광주는 이적료를 통해서 다른 구단의 풀을 받고 있는 '집토끼'를 잡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실속은 쟁쟁하지만 내년 시즌 적으로 만나야 하는 강원엔 힘이 실리는 것은 부담스럽다. 광주는 열악한 환경에도 남기일 감독의 리더십과 선수들의 투혼으로 클래식 잔류에 성공했다. 하지만 매년 '돈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광주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강원엔 등장으로 더 치열하게 클래식 잔류에 도전하게 됐다.

전력 손실도 크다. 정조국을 대체할 공격수를 찾는 게 시급한 문제가 됐다. 또 정

조국이 광주의 어린 선수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어주었던 만큼 경기 외적인 부분에 대한 손실도 아쉽다.

클래식 잔류라는 성과를 이루고 휴가를 보내고 있는 선수들은 22일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다. 이날 선수들은 광산구 일대에서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 구단주인 윤장현 광주시장과도 오찬이 준비됐다. 뜬금없게 자리를 지켜왔던 정조국이 빠진 광주의 첫 공식 일정. 무관심·무능력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구단주가 광주 선수들에게 2017시즌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동원 시즌 4호... 결승골은 못땀네

도르트문트와 1-1 비겨

아우크스부르크의 공격수 지동원이 시즌 4호·리그 3호 골을 터뜨렸다.

지동원은 21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2016-2017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원정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0-0으로 맞선 전반 33분 선취골을 넣었다.

지동원은 역습 상황에서 왼쪽 측면을 돌파한 뒤 안 모라베코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다. 슈팅은 상대 골키퍼 편성에 막혔지만, 지동원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흘러나온 공을 왼발로 밀어 넣어 득점을 만들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리드는 오래가지 않았다.

후반 2분 오른쪽 측면 수비가 풀리면서 동점 골을 내줬다. 그러나 지동원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많은 움직임과 강한 압박으로 아우크스부르크의 공격을 이끌었다. 그는 후반 4분 다시 한 번 결정적인 슈팅을 기록했다. 역습 기회에서 왼쪽 측면 돌파에 성공한 뒤 상대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갑아 차기를 시도했다. 공은 골대 오른쪽으로 살짝 비껴나갔다.

지동원은 후반 44분 하릴 알린토포와 교체됐다. 양 팀은 추가 득점 없이 1-1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구자철과 도르트문트 박주호는 결장했다.

지동원은 올 시즌 분데스리가 16경기에 모두 출전해 3골 1어시스트의 성적을 내고 있다. 독일축구협회(DFB) 포켓에서 넣은 득점까지 더하면 올 시즌 4골을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지동원이 21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2016-2017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원정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0-0으로 맞선 전반 33분 선취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내년부터 ML식 비디오 판독

KBO “외부 비디오 판독 센터서 전문 판독관 판정”

KBO가 내년 시즌부터 메이저리그식 비디오 판독 제도를 시행한다.

KBO 관계자는 21일 “내년 시범경기부

터 ‘심판 합의 판정’(챌린지) 요청이 들어오면 심판이 아닌 전문 판독관이 판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챌린지가 들어올 경우, 경기장에 있는 심판이 중계 방송사의 느린 화면을 보고 정심과 오심 여부를 판정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메이저리그처럼 외부 비디오 판독 센터에서 전문 판독관이 최종 판정을 해 현장의 심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비디오 판독을 경기

현장이 아닌 미국 뉴욕의 메이저리그 사무국 본부에서 한다.

메이저리그 중계를 보면 심판진이 송수신기로 전문 판독관과 대화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내년 KBO리그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 새 비디오 판독 시스템은 내년 시범경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6 대한축구협회 시상식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기성용(스완지시티FC)의 아버지 기영욱(광주시민 프로축구단 단장)과 김정미(현대제철)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기성용은 리그 일정으로 불참해 기영욱씨가 대리수상했다. 가운데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연합뉴스

기성용·김정미 대한축구협 ‘올해의 남녀 선수상’

‘슈틸리케호 캡틴’ 기성용(스완지시티)과 여자축구대표팀의 베테랑 골키퍼 김정미(현대제철)가 2016년 한국 축구 가장 빛낸 별로 선택을 받았다.

기성용과 김정미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6 대한축구협회(KFA) 시상식에서 각각 올해의 남녀 선수상을 받았다.

2011·2012년에 2년 연속 올해의 남자 선수로 뽑힌 기성용은 4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수상의 기쁨을 맛봤다. 그동안 손흥민과 최다 수상 통계를 이뤘던 기성용은 이번에 ‘올해의 남자 선수’ 역대 최다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기성용은 프리미어리그 일정 때문에 행사에 참가하지 못해 아버지의 기영욱 광주FC 단장이 대리 수상했다. 기 단장은 이날 공로패를 받기도 했다.

기성용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의 여자 선수’로 뽑힌 김정미는 센추리 클럽(A매치 100경기 이상 출전)에 가입한 베테랑 골키퍼로 이번이 첫 수상이다.

A매치 104경기 출전을 자랑하는 김정

미는 올해 2월 치러진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을 통해 센추리 클럽에 가입했다.

김정미는 “많이 부족함에도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배우는 자세로 희생하고 모범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2016 대한축구협회 시상식 부문별 수상자 명단

▲올해의 선수상 = 기성용(스완지시티) 김정미(현대제철) ▲올해의 베스트 골 = 손흥민(토트넘) ▲올해의 영플레이어상 = 조영욱(안남고) 박예은(고려대) ▲올해의 지도자상 = 서동원(고려대) 조미희(강경여중) ▲올해의 심판상 = 김중혁 박지영(이상 국제주심) 윤광열 김경민(이상 국제부심) ▲히든히어로상 = K3리그 ▲특별공헌상 = 김병주 김남일 박희영 ▲올해의 클럽 = 진주시여자어린이축구교실 오창SKKFC 수원영통구여성축구팀 넥센타이어 전북50대OB축구단 공릉60대실버부클럽 ▲공로패 = 고(故) 박말봉(전 창원시청 감독) 기영욱(광주FC단장) 김현주(SMC엔지니어링 대표) 이광덕(포천분부장) 이근호(제주) 이상은(OB축구회 이사) 최태원(대구축구협회 부회장)

/연합뉴스